

##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28청춘창업소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 '28청춘창업소'.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부터 영상 촬영까지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중이다. 창업의 꿈과 비전을 갖춘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 '28청춘창업소'를 소개한다.

글. 사진. 이상철(고양소식 편집위원)



28청춘창업소 외관

### '28청춘창업소'는 어떤 곳?

'28청춘창업소'는 798㎡ 면적에 42개의 컨테이너를 8자 모양, 2개 층으로 만들었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은 28개이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회의실·카페와 운영사무실 등으로 구성했다. 입주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39세 미만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이다. 예비 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기 창업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해당한다. 7~8명이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한 동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형 비용은 월 10만 원, 두 개 업체가 같이 사용하는 공동형은 월 5만 원이다. 입주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6개월마다 연장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최대 입주 기간은 만 2년이다.

'28청춘창업소'는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도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과 홍보물 제작,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입주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간담회에서는 직원 채용이나 노무·세무 관련 정보를 얻거나,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체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기자재실, 시제품촬영실 등 5개 공간으로 이뤄진 28청춘창업소의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터 11대와 레이저 커터 1대, 영상 촬영용 캠코더와 편집 장비 등으로 구성된 스튜디오를 갖췄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들은 아이디어를 곧바로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동영상 파일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청년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

'28청춘창업소'는 현재 입주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에 주력하고 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이유정 수석은 "창업 초기인 1~2년 차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검증하고 다듬어 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3~4년 차부터는 실전 단계로서 제품을 양산하고 회사가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선 3개 업체를 선정해 전문 액셀러레이팅 기관과 연계한 집중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순위 기업들에 대해서도 프레젠테이션 기술 멘토링이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수석은 "이곳 업체들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 또는 '중장년창업센터'의 관련 사업에 연결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라며 "입주 업체 소개와 대표 상품·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인쇄물도 최근 제작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28청춘창업소

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6

문의 031-968-7061~6



1. 28청춘창업소 외관  
2. 영상촬영실  
3. 3D프린터기

